

1. 개요

저는 독일 북부에 위치한 함부르크 공과대학(TUHH)에서 2018년 9월 1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018/2019 겨울학기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하였습니다.

2. 학업

Product planning이라는 제품 개발 방법론 수업과 Quantitative methods: Operations Research라는 통계학 및 경영과학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두 수업 모두 석사 과정 수업이었으며 영어로 진행되었고, 독일인 및 기타 인도, 중국 등에서 유학 온 석사 과정생과 여러 교환학생 친구들이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독일어 억양으로 영어 강의를 하시기에 익숙해지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험의 경우 두 과목 모두 필기시험을 치렀으며, 시험 이외에도 4~6인이 한 조가 되어 조별과제 혹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 개발 수업의 경우, 함부르크 중고물품 수거회사의 대표가 직접 수강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하여서 회사 근무 현장을 방문 및 인터뷰 진행을 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3. 생활

기술사의 경우 함부르크 공과대학, 함부르크 대학의 재학생 및 교환학생들이 섞여 있는 Gustav-Radbruch Haus라는 기숙사에서 8인실 생활을 하였습니다. 8인실의 구성원은 브라질, 폴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등지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이었고 평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 주말에 큰 거실에서 음악을 틀고 파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한 파티가 끝난 이후 친구들이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아서 기숙사 청소관리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심각하게 주의를 주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8인실의 경우 거실과 화장실 및 부엌을 공유하고, 각자 개인 방이 별도로 주어지기에 어느 정도 사생활은 보장이 되어 좋았습니다. 다만 이 기숙사의 경우 지하철 및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대기시간 포함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어 미리미리 일찍 출발해야 되었습니다. 함부르크 내 교통의 경우, 학생 semester ticket이 제공되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 무료입니다. 식생활의 경우 기숙사에서 1인용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어먹기도 하고 스파게티, 또띠아, 샌드위치, 햄버거 등 다양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때때로 기숙사 친구들에게 떡볶이나 잡채 같은 한국 요리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은 워낙 식재료가 싸기에 정말 알뜰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4. 인간관계

교환학생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고자 한다면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 함부르크의 경우 주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연합 국가에서 온 교환 학생 친구들 및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친구들 등 여러 국적과 문화권의 친구들을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아무리 시간과 에너지가 많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지낼 수는 없고, 특히나 “현지 독일 학생 및 주민들”의 생활 및 네트워크와 “함부르크에 거주 중인 외국인 학생 및 직장인들”의 생활 및 인간관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독일 현지 사람들과 좀 더 어울리며 독일 고유의 삶의 방식을 체험하고 파고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교환학생 친구들 혹은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여러 나라의 문화를 두루두루 보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 둘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독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문화에 동화되려고 하고 문화적 언어적 지식이 상당한 외국인 친구들”과 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로코, 이탈리아, 프랑스 친구들과 주말에 근교도시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일본 친구와 페르시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콜롬비아 친구와 시립 오페라에서 마술픈리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이나 일상생활 중 틈만 나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고 여러 인생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베트남전쟁 이후 공산화된 북베트남을 떠나 독일로 망명 와서 살고 계시는 아시아 음식점 베트남 아저씨 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을 뒤로 하고 독일 땅에 와서 캐밥 집을 운영하시는 터키 아저씨, 독일 건축학을 배우고자 유학 길에 오른 “드라마 주몽을 본 적이 있는” 이란 친구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느낀 점은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 8월 어느 날 이탈리아 볼로냐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독일 함부르크 출신 친구와 12월에 함부르크 카페에서 재회하거나, 2018년 12월 말 오페라 극장 옆자리에서 알게 된 이란 친구 및 그 친구의 친구들과 이후 2019년 2월 말까지 수 차례 다시 만나거나, 2018년 9월 말 어느 행사에서 모로코 친구를 알게 되고 2019년 1월에 모로코를 직접 방문하여 그 친구의 가족을 만나는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정말 알 수 없고 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노력이 9할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5. 학업 이외 활동

저의 경우 독일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2018년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에서 각각 일주일씩 지내며 여행을 하였습니다.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페루, 콜롬비아부터 미국, 프랑스, 독일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고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머물며 주로 20~30대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같이 현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근교 도시로 짧게 여행을 떠나는 등의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도 월요일과 금요일에 모든 수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평일 비는 시간이나 주말을 틈타 독일 기타 지역 및 다른 국가들을 여행하곤 하였습니다. 가깝게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브레멘, 하노버, 뮌헨 등의 도시부터 네덜란드, 덴마크 등까지 버스나 기차 등 합리적인 가격의 교통수단으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를 방문하거나, 여행이나 독일 생활 동안 알게 된 모로코 친구의 가족을 방문하여 5일 동안 지내거나 모스크바로 여행을 가 러시아 친구와 재회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행 중에 스페인 프랑스 등지에서 현지 요리 교실에 참여하여 현지사람들과 교류하고, 독일 대학에서도 스포츠 강좌로 열리는 요가 수업,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여 독일인 강사님 및 독일인 학생들과 교류하였습니다

6. 언어습득

이번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지만 그 중에서도 언급할 만한 것은 언어 습득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생활하기 앞서서, 여러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해왔고, 고등학교 시절 싱가포르 국립대 부속 교환학생 생활, 중국 북경대 하계강좌, 일본 혼카이도대 인턴십 등을 통해 그 중 몇몇을 생생히 경험해보았지만, 이번 독일 함부르크의 경우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독일어의 경우 출국 이전에 독일 뉴스를 자주 시청하고 블록체인 기술 컨퍼런스나 심리학 팟캐스트 등을 듣곤 했습니다. 막상 독일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영어강의를 듣고 각국 교환학생 친구들과 주로 시간을 보낸다면 독일어에 노출되는 시간 혹은 능동적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독일 문화를 더 이해하고 독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싶었기에, 몇 가지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먼저, Freikarte라고 불리는 학생카드가 있는데, 학사 및 석사 첫 학기 학생 그리고 교환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카드를 활용하면 각종 오페라, 연극, 영화, 박물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 공연 시작 30분전에 도착해서 잔여 좌석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학생증과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어떤 주의 경우는 시간이 되는대로 연극과 오페라를 관람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9번의 공연을 관람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학기 초반 및 후반에 거주지 등록, 독일 현지 은행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비자 발급 등의 행정 처리를 할 때 독일인 공무원 혹은 직원과 독일어로 상담을 하면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실전 독일어 연습을 할 수 있었고 독일인과 독일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 친구들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잘 하는” 콜롬비아 친구, 중국친구, 이란 친구 등 외국

인 친구들과도 독일어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개인들과의 관계는 독일어라는 기반 위에 형성된 것이기에 독일어 및 독일문화가 제 삶의 일부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어 이외에도 학기 시작 전 혹은 중간 크리스마스 방학, 주말 등에 여행을 하면서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어 투어에 참여하던 중 만난 마드리드 출신 모녀와 점심식사를 하며 2시간 넘게 스페인어로 인생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모로코 1일 사막투어에서 만난 스페인 안달루시아 출신 일행 4명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 및 역사 그리고 대학생들의 삶에 대해 스페인어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모로코 친구의 아버지를 뵙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랍어와 불어만 구사하셔서, 모로코에서 지내는 동안 계속 불어로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만난 러시아 친구와 이후 독일 베를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재회하였고 이 만남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문화적 언어적 관심이 깊어져서 틈틈히 러시아어 라디오를 스마트폰 앱으로 청취하고, 인터넷에서 “러시아어로 된 프로그래밍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였을 때 현지 지하철 역무원, 경찰, 레스토랑 웨이터, 호텔 직원, 서점 주인 등 여러 사람들과 러시아어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7. 문화이해 및 해외생활 전반 그리고 글로벌한 사람이 된다는 것

또 하나 느꼈던 것은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섞인 집단 속에서 저 자신이 어떻게 인식되는가입니다. 때때로 다른 친구들이 “너네 아시아 문화는 이러이러하지? 혹은 네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등의 언질을 줄 때, 초반에는 조금 당황을 하곤 했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독일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라는 질문 없이 그냥 너 중국에서 왔지 혹은 역시 너의 중국이름은 발음하기 어려워” 등등 선입견이 포함된 발언들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 첫번째는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특출난 사람이 되자. 그러면 어느 누구든 나를 한 집단의 일개 구성원보다는 특별한 개인으로서 가지고 대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여러 나라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거나 모든 이의 입맛을 사로잡는 요리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인식할 때 “아시아인”, “한국인” 등 한 사회집단의 일부라기보다는 유일무이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갖춘 “개인”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자. 해외 생활을 한다면, 자신의 국적, 인종에 따른 선입견과 차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되, 문화 이해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장점을 적극적으로 누리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독일 함부르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본인의 국가 혹은 도시를 떠났을 때 필연적으로 “다름”에서 오는 차별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외생활에서 감수해야 할 하나의 단점으로서 받아들이고, 다른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마음자

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사 내가 특정 국가에서 생활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럿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단 1명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맞고 서로간의 진심 어린 교류가 가능하다면 그것만으로도 해외생활은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글로벌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외국어 실력이 좋고 해외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국가 혹은 인종에 대한 선입견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를 한 집단이나 사회의 스테레오 타입이 아닌 하나의 개인이자 글로벌 시민으로서 인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8. 자기 성찰의 기회

저의 전공인 산업공학과 관련된 석사 전공 수업들을 들으면서, 대학에 와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정리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세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지 또한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공급망 관리 및 물류 분야에 더욱 더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깊이 탐구하지 못했던 논리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및 prolog 언어에 관해서도 틈틈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 사슬의 세부 영역들인 제품 개발 혹은 유통, 물류에 대해 이번 학기 과목들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고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9. 느낀 점

교환학생을 하면서 제 인생에서 앞으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았고, 삶의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매 순간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치열하게 지난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적 혹은 인종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상황을 직시하고 차근차근 대처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지나고 보면 결국 어떠한 경험이든 스스로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김희선 선생님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문회분들께 감사 드립니다.